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

2024년 7월 28일 / 제648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지용 제1독서 김용재 제2독서 김하연 / 입당 428 봉헌 511, 213 성체 177, 특송: 오병이어 파견 61
Narrator Hawlan Ng 1st Reader Sylvia Sicat 2nd Reader Joseph Lee

입당송 | 시편 68(67),6-7.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 2열왕 4,42-44

화답송 | 시편 145(144),10-11.15-16.17-18(◎ 16 참조)

-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 에페 4,1-6

복음환호송 |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요한 6,1-15

영성체송 |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7월 28일	주일학교 NO	Fr. Mark
08월 04일	주일학교 NO	Fr. Peter
08월 11일	주일학교 NO	Fr. Jim
08월 18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과 영혼을 채워주는 음식, 하느님의 사랑

“아가, 어서 오너라. 배고프지?” 어릴 적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산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아래에 있던 큰 이모님 댁에 들르곤 했는데, 큰 이모님은 저를 언제나 정이 뚝뚝 흐르는 눈길로 반겨주곤 하셨습니다. 찢 감자나 삶은 옥수수 같은 걸 내어놓으시면서요.

오늘 예수님은 필립보 사도에게 어디서 빵을 구해 사람들을 먹일 것인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해야 할 바를 알고 계셨지요.’(요한 6,6 참조) 그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 있는 이들,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길에서 기진할지도 모르는 그들(마태 15,32 참조)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이들을 먹고,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감 없이 보여주십니다.

대 바실리오 성인(330-379)은 고아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치료하며 순례자들을 환대하는 마을을 세워 그리스도교 사회복지 제도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 때문에, 대 바실리오는 근대적인 병원의 창시자로 여겨지기도 하며, 이 마을은 성인의 이름을 따서 바실리아드(Basiliad)라고 불렸습니다. 대 바실리오의 영혼의 벗,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는 친구가 죽은 뒤 그의 행적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물론 바실리오는 빵 다섯 개로 수천 명 사람들의 굶주림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남은 조각만으로 다른 식탁을 차릴 만했던 그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

습니다. … 그러나 바실리오는 이러한 기적들이 낳은 결과를, 같은 믿음으로 묵상하고 행하였습니다. 부유한 이들을 설득하고 권면하여 공간을 열게 하였으며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굶주린 이들을 위해 빵을 나누고,(이사 58,7 참조) 가난한 이들을 배불리며,(시편 132,15 참조) 기근 중에 그들을 먹고,(시편 33,19 참조) 배고픈 영혼들을 채워준 것입니다.(루카 1,53 참조)’ 어떻게 그리했을까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당한 사람들, 말하자면 겨우 숨만 쉬는 갓난아기들, 남자들,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온갖 나이대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 굶주림을 달랠 만한 곡물들을 모두 모아 조금 공간을 한 음식과 콩죽으로 가득 찬 냄비를 준비하여 가난한 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런 다음, 스스로 종이 되시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당신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종들, 아니, 함께 섬기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육신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까지 돌보았습니다.”(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연설》 43,35)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굶주린 사람들의 육신을 채워주시지만, 이제 사랑에 주린 사람들, 그 존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당신 생명을 내어놓으실 것입니다.

황인수 이나시오 수사 | 성바오로수도회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준 침, 한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p> 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미사 때 복음이 선포된 후, 우리는 강론 말씀을 듣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강론 말씀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사 때 듣는 강론은 삶에 위로와 도움이 되는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강론은 무엇보다 전례 거행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hic et nunc)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강론 지침 6항 참조).

여기서 강론을 이루는 중요한 세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하느님의 말씀이 주된 내용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전례 거행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셋째로 '지금 여기서' 우리 삶과 연관을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전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해야 하는지, 또 그렇게 희망하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강론의 역할이 됩니다. 이렇게 강론은 그날 전례 안에서 선포된 하느님 말씀 또는 그날 미사의 통상문이나 고유 전례 기도문 등에 대한 설명을 그 내용으로 하면서(미사 경본 총지침 65항 참조)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떻게 우리 삶 안에 이뤄지고 있는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론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무언가 내 삶에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나

길 바라지만 많은 경우에 여전히 삶의 힘겨움을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 생활 하는데도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드나...' 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남들 하는 것처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특별히 미사 때의 강론을 통해서 그런 '내 삶과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진 생각과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미사 전례 안에 스며 있는 말씀의 빛을 통해 내 삶과 다른 사람들을 비춰 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 삶의 마지막에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반대로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미사 전례 독서와 복음, 그리고 전례 기도 문에 녹아 있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강론은 신앙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하고, 전례 안에서 얻은 은총의 힘으로 삶을 희망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또 다른 말씀이 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랑의 시선'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튼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West Dublin PETS 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p>	<p>광고를 모집합니다. 서상일 시몬 hongbo@tvkcc.org 925-871-9746</p>



■ 8월 주요 전례 일정

- 7월 28일(주일): 꾸르실료 참가자 파견 예식(교중미사 중)
- 8월 1일(목) - 4일(주일): 서중부 여성 제15차 꾸르실료
- 8월 1일(목) - 2일(금): 평일 미사 없음
- 8월 10일(토): 제28차 북가주 성령 대회(새크라멘토 한인 성당)
- 8월 15일(목):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오전 9시 30분, 오후 7시 30분)
- 8월 15일(목): 성모 승천 대축일 기념 작은 음악회
(현악 4중주, 대축일 저녁 미사 후 30분간 진행)
- 8월 17일(토): 주일학교 오프닝 행사
- 8월 25일(주일): 주일학교 개학
- 8월 25일(주일): 예수회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새 신부님 첫미사(오전 9시)
- 8월 31일(토): 오클랜드 교구 다문화 축제 미사
(오전 11시, 오클랜드 주교좌성당)

■ 요아킴·안나회 7월 정기모임

- 일시: 7월 28일(주일),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
- 장소: Room A, 소성당
- 신부님의 특강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마태오 구역 야유회

- 일시: 7월 28일(주일), 오후 12시
- 장소: 클럽 하우스 + 수영장
(3901 Appian St. Pleasanton, CA 94588)
- 대상: 마태오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
- 마태오 구역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함께 음식과 친교를 나누려고 마련된 시간이니 많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규홍 안드레아 장례미사 안내

- 일시·장소: 8월 2일(금), 오전 10시·새크라멘토 한인 성당
9354 Kiefer Blvd #5502, Sacramento, CA 95826
- 유족: 엄상용 미카엘의 아버지·표선우 미카엘라의 시아버님

■ 제28차 북가주 성령대회

- 주제: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1,10)
- 일시: 8월 10일(토),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점심 및 저녁 식사 제공, 베이비 시팅 제공)
- 장소: 새크라멘토 정혜 엘리사벳 한인 천주교회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강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 주최: 북가주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 참가비: \$25(Pay to the order of KSCNC)
- 신청·문의: 성령 기도회

■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장소: 8월 4일(주일), 오전 11시·Room A
- 9월에 있을 바자회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니 모든 반장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 TVKCC 주일학교 Kickoff Event

- 2024 - 25 TVKCC Sunday School Opening Ceremonies: God's Olympics
- 일시: 8월 17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점심식사 제공)
- 장소: St. Elizabeth Ann Seton Gym(JP II Activity Center)
- K - 5학년 signup link: <https://tinyurl.com/TKCCOlympicsK5>
- 6학년 - 12 학년(leader volunteer) signup link: <https://tinyurl.com/TKCCOlympics612>
- 신청 마감: 7월 28일(주일)
- 문의: 성호승 어거스틴(sundayschool@tvkcc.org)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708	\$221	\$2410	\$210	\$410	\$4959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박일신(7-9), 배예자(7), 이정미(4-6), 이종구(6,7), 장찬(7,8), 조원정(7), 지택근(4-6), 채성우(7-9), 홍성호(7,8)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박일신(7-9), 이종구(6,7), 조원정(7), 지택근(4-6), 채성우(7-9), 홍성호(7,8)

- Bishop's Appeal

박일신(7-9), 이종구(6,7), 장찬(1-12), 조원정(7), 지택근(4-6), 채성우(7-9), 홍성호(7,8)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아픈 이들에 대한 사목적 돌봄

For the pastoral care of the sick

병자성사를 받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성사로 주님의 힘을 얻고, 모든 이에게 연민과 희망을 더욱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the Sacrament of the Anointing of the Sick confer to those who receive it and their loved ones the power of the Lord and become ever more a visible sign of compassion and hope for all.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